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햇불로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 본격 전개

T-50 고등훈련기가 단기기동 시험비행을 펼치고 있다.

스를 운영해 의미와 재미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호국보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해 묻혀있다가 미국이 발굴해 하와이로 옮겨진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한다. 6·25 주간에 실시되며, 6월 초 한·미 합동감식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유해를 대상으로 대국민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전쟁 유엔(UN) 참전국을 방문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행하며, 방문이 제한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평화와 번영의 햇불로’는 작은 불꽃이 큰 햇불로 이뤄지는 것처럼 과거 전쟁의 상처가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평화체험’ 행사로 구분해 열린다. 문화예술 행사는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다. 먼저 특별전시회는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성이 담긴 자료를 발굴하고 전시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행사로 열린다. 또 미래 세대에게는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전국에는 감사와 한국의 발전상 홍보를 병행하는 국제학술 회의를 한다. UCC 및 웹툰



1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한 6·25 참전 국군 유해 64위가 도착하고 있다.(2018년 행사)
2 6·25 전쟁 70주년 사업단 발대식 3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기존행사) 4 6·25전쟁 70주년 70초 UCC 7컷 웹툰 공모전 5 뮤지컬 귀환

공모는 청년 세대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나라의 소중함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군 창작 뮤지컬 공연을 할 계획이다.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는 6·25전쟁의 상흔 극복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미술공연으로 열린다. 이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평화체험 행사’로 시행하는 청년평화 발걸음은 미래세대 안보관 확립을 위해 DMZ 평화의 길을 답사하는 행사다. 이는 국민참여단 공개 모집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과학화 전투 훈련 장비를 활용한 6·25 상기 서바이벌 경연대회는 국내 민간동호회 및 현역 장병,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과학화 장비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미 동맹

강화 및 상호국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하는 한미 동맹 기억·감사 행사와 한미 태권도 어울림 한마당(친선경기)이 열린다.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모든 행사는 코로나19의 추이를 고려해 정부 방역지침 준수와 안전이 담보된 행사로 추진한다. 다양한 행사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과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의 달을 기점으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개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햇불로’의 2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기억의 불꽃’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전승행사’(9~11월)와 ‘호국보훈행사’로 구분해 열린다.

‘전승행사’는 6·25전쟁 당시 전장의 국면을 전환한 3대 주요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사는 참전용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학생과 시민들에게는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와 연계해 참전용사 초청과 보은행사로 진행한다. 전승식과 위로연, 전투 재연을 관람하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주요 전투 체험 부

